주간브리프
WEEKLY ISSUE BRIEF
2026. 6. 29.
Vol. 25

세계 경제 동향

○ 미국 5월 PCE 물가 4.1% 상승 ▌'26-6-25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CNBC

- 6월 25일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이 발표한 5월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CE) 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1%(전월대비 +0.4%), 근원 PCE(식료품·에너지 제외)는 전년동월대비 3.4%(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연준 목표(2%)를 크게 상회
  - 명목 PCE는 전월대비 0.7%, 1,561억 달러 증가(서비스 지출 +943억 달러, 재화 지출 +618억 달러). 실질 PCE는 0.3% 증가하였으며, 개인소득과 가처분소득은 각각 0.7% 늘어남.
- 높은 물가 상승은 이란 전쟁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여타 부문으로 점차 파급된 결과로, 에너지 관련 재화·서비스 가격이 전월대비 4% 상승하며 최대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연준은 최근 FOMC에서 "물가안정을 실현하겠다"며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을 철회·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음.

❖ 물가 상승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증가는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으로 이어져 국내 수입 농식품·농자재 가격 부담 가중 우려. 환율·국제물가 동향의 지속 모니터링 필요

국내 경제 동향

○ 6월 소비심리 소폭 개선·기업심리 하락 ▌'26-6-23; '26-6-25 한국은행

- 6월 소비자심리지수(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CCSI)는 106.6으로 전월대비 0.5p 상승하며 낙관 영역(100 상회)을 유지. 현재경기판단(86, +3p)·현재생활형편(94, +1p)이 개선됐으나 향후경기전망(92, -1p)은 소폭 하락
  - 물가수준전망(150)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금리수준전망이 126으로 12p 상승
  -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 석유류제품, 공공요금, 농축수산물 등이 지목돼 에너지·공공요금·먹거리 물가에 대한 체감 부담 지속
- 6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omposite Business Sentiment Index, CBSI)는 97.7로 전월대비 -1.2p 하락(다음달 전망 95.2, -2.4p). 제조업(101.2, +0.4p)은 자금사정·신규수주 개선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비제조업(95.4, -2.1p)은 매출·채산성 악화로 하락
  - 수출기업(106.4)과 대기업(104.5)이 기준선을 상회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인 반면, 내수기업(98.0)과 중소기업(95.7)은 상대적으로 부진해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간 체감경기 차이 지속

❖ 금리수준전망 상승·고물가 전망 지속은 농가 금융비용 부담과 식품물가 부담 인식을 키우는 요인. 다만 소비심리·소비지출전망(110)이 양호해 외식·농식품 소비 여력은 유지되는 만큼, 금융·물가 부담과 소비 여력 양면의 모니터링 필요

세계 농업·농정 동향

FAO, 엘니뇨발 농업 가뭄 위험지역 분석 결과 발표 ▌'26-6-22 FAO

- 세계기상기구(WMO)가 평년보다 강한 엘니뇨 발생을 전망한 가운데, FAO는 위성자료를 토대로 엘니뇨에 따른 농업·목초지 가뭄 위험지역을 분석·발표함.
  - 가뭄 발생확률 50% 이상 고위험지역: 사헬 지역(사하라 사막 남쪽 가장자리), 남아프리카 전역,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건조회랑(중미 태평양 연안), 카리브해
  - 가뭄에 따른 농업피해의 80% 이상 저·중소득국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 아시아는 벼·옥수수 작물의 작황 부진 우려
- 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고위험국 지원을 위해 2억 200만 달러 모금 캠페인 추진

❖ 가뭄으로 작황 부진 시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전이될 수 있어, 주요 생산국 작황 모니터링 필요

EU, 기후재해 피해 5개국 농가에 5,600만 유로 이상 긴급 지원 ▌'26-6-2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EU 공동농업정책은 생산·유통에 피해를 주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4.5억 유로 이상 농업 예비기금 운용
- 5개국 피해 상황: (포르투갈) 폭우·강풍·홍수로 농경지·기반시설 피해, (루마니아) 가뭄·폭염으로 옥수수·해바라기 피해, (키프로스) 가뭄·고온으로 작물 손실 및 사료비 상승, (크로아티아) 이상저온·과다강우·가뭄으로 작물 피해, (슬로베니아) 봄철 서리로 사과 피해
- 지원액(만 유로): 포르투갈 3,000, 루마니아 1,480, 키프로스 460, 크로아티아 440, 슬로베니아 280

❖ 지구 온난화로 기후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농업재해 대응체계 및 재해보험 운용 점검 필요

국내 농업·농정 동향

'25년 귀농 인구 8.5% 증가 ▌'26-6-25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등 3개 기관은 '202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발표함. 지난해 귀농 인구는 11,617명(8,735가구)으로 전년 대비 8.5%(6.0%) 증가함.
- 귀농 인구 중 70대 이상과 여성의 증가율이 두드러졌으며, 겸업 귀농인 비중이 증가함.
  - 전년 대비 귀농인 증가율(%): 70대 이상 17.3, 60대 이하 8.0 / 여성 15.4, 남성 5.1
  - 귀농인 겸업 비중(%): ('15) 22.8 → ('20) 31.4 → ('24) 32.1 → ('25) 32.6
- 귀농가구의 재배면적은 평균 0.34ha로 영세, 채소재배 농가 비중이 가장 높고, 농지임차 가구 비중은 지속 확대
  - 재배작물 비율(%): 채소 44.5, 논벼 31.5, 과수 30.8, 특용 24.1, 두류 13.9
  - 순수 농지임차 가구 비중(%): ('22) 26.9 → ('23) 27.7 → ('24) 31.1 → ('25) 33.9
- 귀촌 이유는 일자리(32.1%), 주택(26.1%), 가족(25.4%) 순이며, 가족을 이유로 귀촌한 비중이 지속 증가
- 귀농 전 거주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40.5 / 서울 14.2, 인천 5.3, 경기도 21.0, 광주 8.2
- '25년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7개 지역에서 귀촌인 평균 37.8% 증가
- 최근 5년 내 귀농·귀촌인의 도시 회귀율은 각각 3.4%, 8.3%

❖ 귀농 증가 흐름은 긍정적이나, 정착 이후 도시 회귀 사례도 상존하는 만큼 일자리·주거 등 정착 여건 내실화 필요